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1.28.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하여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한편, 미국측에도 우리의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습니다.
-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 - * 소비자심리지수(장기평균=100): (25.1)91.0 (4)93.6 (7)110.7 (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26.1)110.8
- 정부는 이러한 경제 개선 흐름을 “민생 회복의 불길”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 - 특히,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
[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] ['26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계획]

- 먼저,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- 우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.
 - 사과와 배,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*을 역대 최대인 27만톤(평시 대비 1.5배) 공급하겠습니다.
 - * (농산물) 배추, 무, 사과, 배 (축산물) 소, 돼지, 닭, 계란 (임산물) 밤, 대추 (수산물) 명태, 오징어, 갈치, 참조기, 고등어, 마른멸치
 - 910억원의 정부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%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 - * (환급규모) '25년 270억원 → '26년 330억원 (참여시장) 농축산물 160 → 200개, 수산물 120 → 200개
 - 고등어, 바나나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*를 적용하고 바가지요금 걱정이 없도록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.
 - * 2.12일부터 고등어(2.5만톤, ~12월말), 바나나, 파인애플, 망고(~6월말)

-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민생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.
 -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신규자금 39.3조원을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·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습니다.
 - 설 전후로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.1조원 공급하고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1.6조원을 설 전에 조기지급하겠습니다.
 - 직접일자리 사업도 역대 최대인 128.8만명으로 확대하고 1월중에 올해 채용목표의 65%인 83만명, 상반기까지 97%인 124만명을 신속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설 명절을 계기로 관광과 소비 등 내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.
 -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국가유산과 미술관,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.
 - 2월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.
 - 또한, 2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대폭 상향*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.
 - * (할인율) 횡성군(10→15%), 양산시(10→13%) 등 66개 지역
(구매한도) 파주시(70→100만원), 화천군(50→100만원) 등 35개 지역

['25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]

- 아울러, 올해는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”을 통해 내수 회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.
 - 지난해 여러 할인행사들을 통합하여 개최하면서 행사기간 총 매출액이 전년보다 약 7% 증가한 13.3조원을 기록했습니다.
 - 올해도 통합 행사계획을 1분기까지 조기 마련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.

[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추진계획]

- 다음으로, 1월초 발표한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에 담은 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습니다.
 - 전체 133개 과제 중 40%가 넘는 55개 과제를 1/4분기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.
 - 2~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, 제조AI 2030 전략,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등 주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,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개정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생활형 R&D,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.
-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핵심입니다.
 - 최근 CES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웃 나라에 비해 혁신 제품과 기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
- “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결국 굶어 죽습니다.”
 - 과거 반도체와 CDMA의 신화를 썼던 우리의 압도적인 “기업가 정신”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.
 -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바로 혁신의 “골든타임”입니다.
- K-컬처가 세계를 매료시켰듯이 이제는 K-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.
 -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혁신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.
 - 우리 기업들도 세계 1등의 제품, 서비스, 기술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- 다음으로 농식품부 차관님, 해수부 차관님께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
(농식품부, 해수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